

한국판 균형적 시간조망척도(K-BTPS)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최 지 선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 정 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Webster(2011)가 균형적 시간조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BTPS)을 한국판 척도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척도 문항들에 대해 번역과 역번역을 진행하였고, 전문가의 내용검토과정을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예비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663명($M=21.53$ 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 1(232명)의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긍정 시간조망'과 '과거긍정 시간조망'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2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균형적 시간조망척도(K-BTPS)가 구성되었다. 이어 구성타당도와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한 준거타당도 역시 양호한 수준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표본 2(431명)의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 선 분석에서 제안된 2요인 측정모형이 수용할만한 정도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덧붙여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한 균형적 시간조망 하위집단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을 비교하여 척도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K-BTPS의 한국 타당화 과정에 서 발견된 연구의 한계점이 논의되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본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주요어: 시간조망, 균형적 시간조망, 척도타당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 이 논문은 최지선의 석사학위 청구논문(2016년 2월)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정미, (03136)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54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02-763-7448, E-mail: bice0213@gmail.com

시간이란 시계라는 물리적 도구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 현상(Boniwell, 2009)이지만, 개개인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주관적 현상이기도 하다(Hendricks & Peters, 1986). 따라서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느끼는 시간의 길이와 밀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시간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시간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Zimbardo & Boyd, 1999).

‘시간조망(Time Perspective)’은 ‘특정한 시간영역에 대한 개인의 지향성 또는 태도’(Webster, 2011)로서,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정서적 반응, 그리고 과거사건에 대한 기억과 회상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큰 역할을 한다(Zimbardo & Boyd, 1999). Zimbardo와 Boyd (1999)는 시간조망이 ‘과거-긍정적’, ‘과거-부정적’, ‘현재-쾌락적’, ‘현재-운명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등의 다섯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를 개발하여 시간조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후 시간조망에 대한 개인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Boniwell과 Zimbardo(2003)는 ‘균형적 시간조망(Balanced Time Perspectiv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균형적 시간조망이란 ‘자신의 과거와 미래 양쪽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빈번하고 균등한 경향성’(Webster, 2011)이자,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시간영역 간의 유연하고 적절한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Boniwell & Zimbardo, 2003). 이에 Webster(2011)는 ‘미래긍정 시간조망’과 ‘과거긍정

시간조망’의 2요인으로 이루어진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BTPS)을 개발하면서 삶의 만족, 행복,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기대되는 방향의 양호한 상관을 입증함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척도는 ‘지금 현재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인지하는 바’를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재 시간조망이 내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Vowinckel, 2012). 따라서 ‘현재’ 시간영역에 대한 조망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가장 강하게 접촉되는 시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시간조망 측정도구는 ZTPI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ZTPI는 개인이 선호하는 시간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까닭에 시간영역에 대한 개인의 균형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문항 수가 56개로 응답자의 피로에 따른 잠재적인 측정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Webster, 2011). 반면 BTPS는 ZTPI와 비교하여 문항 수가 28개로 상대적으로 적고, 시간영역과 관련된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요인 간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Webster, 2016). 또한 긍정적인 기억과 예측에 대한 정서적 측면, 동기유발 및 자아관련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정신적 표상을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하고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임상실제에서도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지지를 받고 있다(Barsics, Robetez, Rochat, Argembeau, & Linden, 2017).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균형적 시간조망을 가

진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 낙관성, 자기효능감 (Boniwell, Osin, Linley, & Ivanchenko, 2010), 행복과 삶의 만족(Webster & Ma, 2013), 주관적 안녕감(Zhang, Howell, & Stolarski, 201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형적 시간조망은 '지금-여기'에 대한 알아차림(awareness) 및 주의(attention)의 유연성과 관련 있으며(Bishop, Lau, Shapiro, Carlson, & Anderson, 2004), 마음챙김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Drake, Duncan, Sutherland, Abernethy, & Henry, 2008). 이에 대해 Vowinckel(2012)은 균형적 시간조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가 그의 과거 및 미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학자들은 균형적 시간조망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게 되었다(Zhang et al., 2013).

특히 주의의 유연성, 즉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주의전환능력은 균형적 시간조망의 핵심요소이자 정신적 웰빙과의 관련성이 높다(Boniwell & Zimbardo, 2004). 예를 들어 우울증 및 다른 심리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반추(rumination)는 역기능적인 자기 초점적 주의(정혜경, 노승혜, 조현주, 2017)로서, 부정적 과거에 대한 회상(과거-부정적 시간조망)으로 인해 높은 불안과 공격성, 그리고 낮은 자존감(Rothspan & Read, 1996), 우울 및 신경증(Cappeliez, O'Rourke, & Chaudhury, 200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반면 과거에 대한 긍정적 회상(과거-긍정적 시간조망)은 개인의 삶을 즐기는 능력(Bryant, Smart, & King, 2005), 그리고 높은 자존감 및 안녕감(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넓은 미래지향적 시간조망과 시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과 자기조절력을 가진다(Lennings, Burns, & Cooney, 1998).

관련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래지향의 시간조망과 지연행동 간에는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권대훈, 2016), 높은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일수록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한경훈, 김병조, 노수림, 2017) 국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조망 관련 연구는 초기 개인이 선호하는 단일 시간영역을 밝히는 유형 연구에서 벗어나, 최근 시간영역 간의 유연한 주의전환을 중요시하는 균형적 시간조망 연구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동했다. 과거의 긍정적인 면을 일관되게 기억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자주 상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형적 시간조망은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 그리고 낮은 우울과 불안 등의 유익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미국(Boniwell et al., 2010; Webster & Ma, 2013), 프랑스(Barsics et al., 2017; Coudin & Lima, 2011), 네덜란드(Vowinckel, 2012; Webster, Bohlmeijer, & Westerhof, 2014)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균형적 시간조망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탐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BTPS는 최근 프랑스(Barsics et al., 2017)에서 타당화된 바 있는데, 이들은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면서 임상실제에서의 활용을 비롯하여 문화 간 비교연구를 위해서도 다양한 언어로 척도 타당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BTPS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Erikson(1968)에 따르면 청년기는 정체성 탐색과정에서 과거 경험을 회상하고 그 결과를 현재 자기에 대한 이해로 연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자기 간 연속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를 탐색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조망 대 혼돈'이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균형적 시간조망'의 획득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았다. 시간조망이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고 그 속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는 자기상이 확립되면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다(송명자, 2015; Erikson, 1968).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청년기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BTPS의 한국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척도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과 동시에, 측정모형의 강건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8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응답자 680명 중 문항누락이 있거나 하나의 번호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사회적 바람직성척도에서 응답 왜곡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자료를 제거하고, 최종 663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21.53세로서 남자 217명(32.73%), 여자 446명(67.27%)이었다.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무작위로 두 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표본 1($N=232$)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표본 2($N=431$)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본 1의 평균 연령은 21.74세($SD=3.46$)로서 남자 74명(31.90%), 여자 158명(68.10%)이었다. 표본 2의 평균 연령은 21.42세($SD=2.90$)로서 남자 143명(33.20%), 여자 288명(66.82%)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균형적 시간조망척도(Korean Version of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 K-BTPS). 먼저 BTPS의 개발자인 Webster와의 서신교환을 통하여 한국어 타당화를 위한 척도사용 허가를 받았다(2015년 2월 4일 서신교환). 이후 원 척도를 한국어로 1차 번안하였고,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사용자이며 척도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 2인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이후,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교수 3인으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원척도와 비교를 통해 문항의 내용을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Webster(2011)가 개발한 BTPS는 '미래긍정 시간조망'과 '과거긍정 시간조망' 2개 요인에 각 14개 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두 하위척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시간조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Webster(201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미래긍정 시간조망 .92, 과거긍정 시간조망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28개 문항 예비척도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94와 .90으로 나타났다.

Zimbardo 시간조망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 Zimbardo와 Boyd (1999)가 개발한 ZTPI를 윤소정과 김정섭(2012)이 타당화한 Zimbardo 시간관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지향하는 시간조망의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56개 문항이다. 과거긍정,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운명, 미래지향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윤소정과 김정섭(2012)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과거긍정 .77, 과거부정 .69, 현재쾌락 .69, 현재운명 .73, 미래지향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K-BTPS와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긍정과 미래지향 2개의 하위 척도만 사용하였으며, 각각 .79와 .82로 나타났다.

옥스퍼드 행복질문지(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Hills와 Argyle(2002)이 개발한 OHQ를 최요원과 이수정(2004)이 타당화한 한국판 옥스퍼드 행복질문지를 사용하였다. Hills와 Argyle(2002)이 개발한 OHQ는 29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요원과 이수정(2004)의 연구에서는 문항척도 간 부적상관이 나왔던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최요원과 이수정(2004)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9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삶의 만족도 척도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류연지(1996)가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를 사용하였으며 5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7점 Likert척도로 평정된다. 류연지(199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로젠버그 자존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개인의 자기존중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전병재(1974)를 필두로 이훈진과 원호택(1995) 등 여러 연구자들이 각기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1)가 출판한 “심리척도 핸드북 I”에 수록된 RSES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는 이영자(1996)의 연구에서 .79,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척도. Paulhus(1991)가 개발하고 정보라(2004)가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BIDR)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자기보고식 설문 참여자가 자신을 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Paulhus, 1991). 합당한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평가됨을 알고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경향에 의해 응답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그러한 응답왜곡 경향성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BTPS의 원개발자인 Webster가 척도 타당화를 위해 BIDR의 하위척도 중 인상관리 요인에 속한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던 바,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번갈아가며 제시되는 균형척도이며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내적일치도는 정보라(2004)의 연구에서 .6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한국판 균형적 시간조망 예비척도의 문항 표현의 적절성, 문항 의미의 명확성, 그리고 응답자들의 내용 이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당시 평균 응답소요시간은 9분이었으며, 참여자들에게 문항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없는지 의견을 물었으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설문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과 Amos Program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표본 1에 대한 평균, 백분율, 왜도와 첨도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Cronbach's α 에 의해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이어,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최대우도법, 회전은 사각회전 방법인 직접 오블리민을 사용하였

으며, 이순목(2000)의 권고에 따라 고유값,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검사, 그리고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요인 수효를 결정하였다. 이어 요인분석을 통해 묶여진 각 요인들이 동질적인 문항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2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표본 2를 자료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추정법은 최대우도법으로 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과 CFI, TLI, RMSEA, SRMR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행복, 삶의 만족도,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 및 Zimbardo 시간조망척도와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균형적 시간조망 점수에 따른 집단구분에서 집단 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의 평균비교를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척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 3.49~4.78, 표준편차 .99~1.34로 모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뢰도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41~.78로 걱정수준의 값을 나타내었고, 문항 제거 시 내적일치도가 증가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8문항 모두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 1. K-BTP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32)

문항 내용	요인	
	1	2
6 나는 수 년 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즐겁다.	.86	
24 나는 미래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즐겁다.	.85	
12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신이난다.	.84	
14 앞으로의 삶을 예상하는 것은 나를 희망차게 한다.	.81	
10 미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74	
8 나는 미래에 대해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다.	.74	
16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	.72	
18 나는 장차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72	
2 나는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69	
26 나는 매우 구체적인 미래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68	
22 나는 나의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64	
20 나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본다.	.63	
4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난다.	.62	
28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춘다.	.52	
23 지난날의 성공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나의 강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42	.36
25 이전의 성공을 회상하는 것은 지금 나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35	.33
15 과거를 더듬어보는 것은 나에게서 위안의 원천이다.		.90
19 나의 과거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느낀다.		.83
9 나는 과거를 회상하면 삶의 기쁨이 더욱 강해진다.		.78
3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억해보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		.61
11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58
27 나의 과거는 중요한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57
13 과거를 성찰하면 내 삶의 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56
17 과거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 나에게 힘이 된다.		.55
7 내 과거 삶의 조각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한다(정체감을 갖게 한다).		.46
5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찾게 한다.		.40
21 지금보다 젊은/어린 시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8
1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의미부여에 도움이 된다.		.37
고유치	11.29	2.22
분산률(%)	40.32	7.91
누적분산률(%)	40.32	48.24

주. * 는 두개 요인에 걸쳐 근사한 요인부하값을 보여 삭제된 문항.

다음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KMO 표본적합도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은 .936으로 1에 가깝고 기준치인 .60보다 높아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chi^2(378, N=232)=4,066.02, p<.001$, 변인들 간 상관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이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초기 추출에서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3개로 각각 11.38, 2.26, 1.21로 나왔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수효의 결정에서 고유치가 1 이상일 것, 스크리 도표에서 급격히 각도가 꺾여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 바로 앞에서 요인추출을 멈출 것,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무엇보다 이론과 선행연구에 기초한 연구자의 해석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순목(2000)의 견해를 좇아 원칙도 개발자인 Webster(2011)와 동일하게 요인수를 2로 지정하고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방법인 직접오블리민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5번 반복회전 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chi^2(323, N=232)=905.41, p<.001$. 28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이 명확하게 하나의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나타내었으나, 문항 5, 문항 23, 그리고 문항 25의 세 문항의 경우에는 두 개 요인에 걸쳐 .30 이상의 부하값을 나타내었다. 문항 5의 경우 두 부하값의 차이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더 큰 값을 나타낸 요인에 포함시켰다. 문항 23(지난날의 성공에 대

해 성찰하는 것은 나의 강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과 문항 25(이전의 성공을 회상하는 것은 지금 나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의 경우는 두 요인에 부하된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각각 .06과 .02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원칙도의 28개 문항 중 23번 및 25번 두 개의 문항을 제외한 26개의 문항으로 제안하여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K-BTPS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문항들 간 내적일치도 및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요인 내 문항 간 일치도는 제 1요인 .94, 제 2요인 .89, 전체 신뢰도 .94로 나타나 각 요인 내 문항들 간 양호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제 1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 및 목표와 성장에 대한 긍정적 조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긍정 시간조망'으로 명명하였고, 제 2요인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거긍정 시간조망'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K-BTPS 총점의 검사-재검사 상관은 .72로 나타났으며, 미래긍정 시간조망은 .78, 과거긍정 시간조망은 .71로 양호한 상관을 나타내어 측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된 K-BTPS

표 2 K-BTPS의 요인별 내적일치도 및 문항-총점상관

요인명	문항 번호	문항-총점 상관	문항 삭제 시 Cronbach's α	요인별 신뢰도 계수
1	2	.65	.94	.94
	4	.71	.94	
	6	.79	.93	
	8	.72	.94	
	10	.76	.93	
	12	.82	.93	
	14	.77	.93	
	16	.68	.94	
	18	.66	.94	
	20	.60	.94	
	22	.64	.94	
	24	.80	.93	
	26	.68	.94	
28	.60	.94		
2	1	.41	.89	.89
	3	.65	.88	
	5	.58	.88	
	7	.58	.88	
	9	.66	.88	
	11	.70	.87	
	13	.62	.88	
	15	.68	.87	
	17	.54	.88	
	19	.65	.88	
21	.52	.88		
27	.54	.88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94

의 2요인구조(그림 1 참조)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2(N=431)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Webster(2011)의 BTPS 개발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구조방정식모형에 기초한 통계적 평가는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적 모형과 실제자료의 부합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절차이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K-BTPS의 2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는 χ^2 값과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Index: CFI), 비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및 표준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하였듯이, χ^2 값은 1100.70으로 나타났으며, $\chi^2(298, N=431)=1100.70, p<.001$, CFI는 .882, TLI는 .861, RMSEA는 .079, 그리고 SRMR은 .055를 나타내었다. 각 적합도 지수의 좋은 적합도 판단기준은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홍세희, 2000), 그리고 SRMR은 .08 이하(이순목, 1990)인 것에 비추어 보면, CFI와 TLI의 경우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90에 다소간 못 미치지만, RMSEA와 SRMR의 경우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K-BTPS 2요인 측정모형의 비표준화계수 및 표준화계수 추정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및 C.R.값의 분석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p<.001$. 이로써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BTPS의 2요인 모형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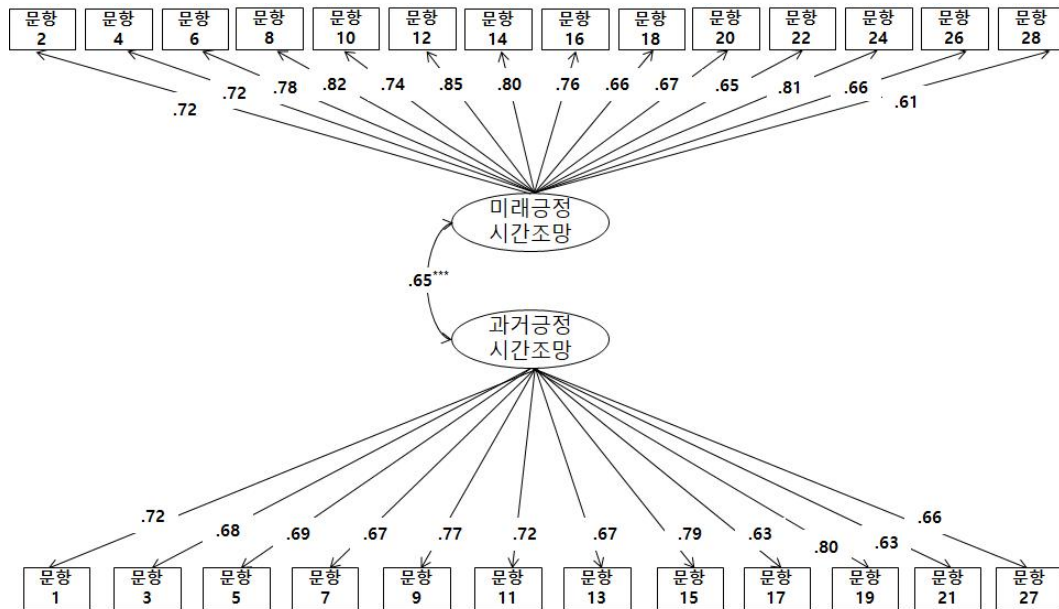


그림 1. K-BTPS 2요인 구조모형

표 3. K-BTPS의 2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i>N</i>	χ^2	<i>df</i>	<i>p</i>	χ^2/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	431	1100.70	298	.000	3.69***	.882	.861	.079	.055

표 4. K-BTPS 2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문항	비표준 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미래 긍정 시간 조망	→ 28	1.00	.61	-	-
	→ 26	1.29	.66	.11	11.620***
	→ 24	1.36	.81	.10	13.50***
	→ 22	.96	.65	.08	11.53***
	→ 20	.97	.67	.08	11.80***
	→ 18	1.08	.66	.09	11.62***
	→ 16	1.24	.76	.10	12.93***
	→ 14	1.37	.80	.10	13.36***
	→ 12	1.53	.85	.11	13.96***
	→ 10	1.24	.74	.10	12.70***
	→ 8	1.39	.82	.10	13.66***
	→ 6	1.43	.78	.11	13.21***
	→ 4	1.38	.72	.11	12.50***
→ 2	1.19	.72	.10	12.40***	
과거 긍정 시간 조망	→ 1	1.00	.49	-	-
	→ 3	1.49	.68	.15	9.64***
	→ 5	1.53	.69	.16	9.71***
	→ 7	1.34	.67	.14	9.55***
	→ 9	1.80	.77	.18	10.20***
	→ 11	1.42	.72	.14	9.90***
	→ 13	1.32	.67	.14	9.54***
	→ 15	1.74	.79	.17	10.34***
	→ 17	1.34	.63	.15	9.28***
	→ 19	1.74	.80	.17	10.41***
	→ 21	1.32	.63	.14	9.29***
	→ 27	1.49	.66	.16	9.48***

*** $p < .001$.

K-BTPS의 타당도 검증 결과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K-BTPS 총점과 각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K-BTPS 총점은 미래긍정 시간조망과 .91, 과거긍정 시간조망과는 .88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간 상관은 .61로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로써 K-BTPS는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면서도 적정수준의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K-BTPS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균형적 시간조망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한국판 옥스퍼드행복질문지(OHQ), 삶의 만족도척도(SWLS), Rosenberg의 자존감척도(RSES), 한국형 Zimbardo 시간조망척도(K-ZTPI)와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K-BTPS가 관련척도들과 .40에서 .70에 이르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HQ, SWLS, 그리고 RSES와 각각 .70, .54, .56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K-BTPS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OHQ는 '미래긍정 시간조망'과는 .69, '과거긍정 시간조망'과는 .56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SWLS는 '미래긍정 시간조망'과는 .50, '과거긍정 시간조망'과는 .48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RSES는 '미래긍정 시간조망'과는 .56, '과거긍정 시간조망'과는 .43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든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한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인상관리 요인과 K-BTPS 총점 간 상관은 .19, $p < .001$, 였으며,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미래긍정 시간조망'과는 .14, $p < .01$, '과거긍정 시간조망'과는 .20, $p < .001$, 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K-ZTPI와의 상관은 .49, $p < .01$, 로 나타나, 균형적 시간조망의 시간조망 속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K-ZTPI의 미래지향적 시간조망과 과거긍정적 시간조망이 서로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표 5. K-BTPS 요인 간 상관 및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N=663)

구분	평균(표준편차)	K-BTPS	미래긍정 시간조망	과거긍정 시간조망
K-BTPS	4.07 (.74)			
미래긍정 시간조망	4.25 (.88)	.91***		
과거긍정 시간조망	3.30 (.78)	.88***	.61***	
행복척도	3.99 (.67)	.70***	.69***	.56***
삶의 만족도 척도	4.00 (1.22)	.54***	.50***	.48***
Rosenberg 자존감 척도	2.86 (.51)	.56***	.56***	.4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인상관리)	2.92 (.38)	.19***	.14**	.20**
Zimbardo 시간조망 척도	3.39 (.44)	.49***	.39***	.49***
과거긍정적시간조망	3.48 (.64)	.49***	.32***	.58***
미래지향적시간조망	3.33 (.55)	.26***	.27***	.20***

*** $p < .001$. ** $p < .01$.

균형적 시간조망 집단 간 차이검증

K-BTPS의 척도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균형적 시간조망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주요변인 즉,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는 Webster(2011)의 척도개발 당시 연구를 근거로 한 것으로, 그는 과거긍정과 미래긍정이 모두 높은 집단을 'Time expansive', 과거긍정은 낮고 미래긍정은 높은 집단을 'Futurists', 과거긍정은 높지만 미래긍정은 낮은 집단은 'Reminiscers', 과거긍정과 미래긍정이 모두 낮은 집단을 'Time restrictive'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표본(N=535)의 자료를 이와 같이 네 집단을 구분하고, 미래긍정과 과거긍정 두 요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 206명(38.5%)을 '확장형 시간조망', 둘 다 낮은 집단 189명(35.5%)을 '제한형 시간조망'으로 명명하였고, 미래긍정은 낮고 과거긍정은 높은 집단 72명(13.5%)을 '과거

회상형'으로, 미래긍정은 높고 과거긍정은 낮은 집단 68명(12.7%)을 '미래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구분에 따른 시간조망 유형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의 점수평균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확장형의 시간조망을 가진 집단이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제한형의 시간조망을 가진 집단이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각 시간조망유형별 집단 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각 변인별 차이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에 있어서의 집단비교에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F(3, 533)=30.47$, $p < .001$, 사후검증결과 행복점수는 '확장형'(4.46) > '미래지향형'(4.11) > '과거회상형'(3.81) > '제한형'(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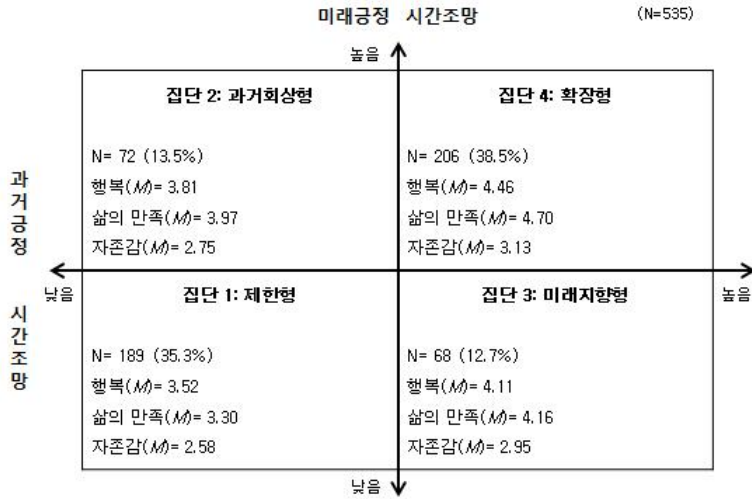


그림 2 균형적 시간조망 집단 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평균

표 6. 집단에 따른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차이검증

시간조망 집단 구분	M	SD	F	Scheffé 사후검증	
행복	제한형	3.52 ^a	.51	107.97***	d>c> b>a
	과거회상형	3.81 ^b	.55		
	미래지향형	4.11 ^c	.55		
	확장형	4.46 ^d	.54		
삶의 만족	제한형	3.30 ^a	1.03	57.70***	d>c= b>a
	과거회상형	3.97 ^b	.96		
	미래지향형	4.16 ^c	1.20		
	확장형	4.70 ^d	1.07		
자존감	제한형	2.58 ^a	.49	51.46***	d>c> b=a
	과거회상형	2.75 ^b	.39		
	미래지향형	2.95 ^c	.47		
	확장형	3.13 ^d	.41		

*** $p < .001$.

있어서의 집단비교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F(3, 534)=64.47, p<.001$, 사후검증 결과 삶의 만족도 점수는 ‘확장형’(4.70)> ‘미래지향형’(4.16)=‘과거회상형’(3.97)>‘제한형’(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존감에 있어서의 집단비교 결과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3, 534)=10.27, p<.001$, 사후검증결과 자존감 점수는 ‘확장형’(3.13)>‘미래지향형’(2.95)>‘과거회상형’(2.75)=‘제한형’(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Webster(2011)가 균형적 시간조망 측정용 위해 개발한 BTPS의 한국 타당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균형적 시간조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네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 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원칙도 개발자인 Webster(2011)의 미국 연구결과 및 Barsics 등(2017)의 프랑스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균형적 시간조망’이 ‘미래긍정 시간조망’과 ‘과거 긍정 시간조망’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23번 문항(지난날의 성공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나의 강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과 25번 문항(이전의 성공을 회상하는 것은 지금 나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의 요인부하값이 2개 하위요인 모두에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어 최종 척도구성에서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문항의 내용은 분명히 과거의 성공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조망에 속한 문항들과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과 프랑스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경우 미래시간조망개념을 획득하는 시기(Husman & Shell, 2008)로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초점을 두는 인지적 특성이 문항에서 묻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앞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의 활용 여부를 중심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되었던 2요인 구조의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모든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FI는 좋은 적합도의 기준에 다소간 못

미치나 수용할 만하였고, 간명성 지수인 RMSEA와 SRMR은 각각 괜찮은 적합도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TLI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본 척도가 한 요인에 10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ebster(2011)와 Barsics 등(2017)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원칙도의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척도들과 유사한 준거척도를 선정하여 이들 관련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K-BTPS의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K-BTPS 총점 및 하위척도가 행복(OHQ), 삶의 만족(SWLS), 자존감(RSES), 시간조망(K-ZTPI)과 기대한 방향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BTPS의 원개발자인 Webster(20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자,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Boniwell, 2009; Bryant et al., 2005; Lennings & Gow, 1997; Seijts, 1998; Zimbardo & Boyd, 2008)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K-BTPS와 사회적 바람직성척도 간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 역시 원칙도 개발자인 Webster(20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인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신뢰성과 타당성에 위협을 받는다(Paulhus, 1984,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K-BTPS가 응답자 자신의 반응을 왜곡하지 않고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척도임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K-BTPS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BTPS의 원 개발자인 Webster(2011)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균형적 시간조망 두 하위요인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중 ‘확장형’ 시간조망집단이 행복, 삶의 만족, 자존감이 모두 다른 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유연한 관점을 보이는 사람이 제한적인 시간조망을 가진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던 Webster 등(2014)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연속성을 인식하며 균형적인 시간조망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itvinovic, 1999), 개인의 안녕감과 의미추구, 행복의 근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Boniwell & Zimbardo, 2004; Drake et al., 2008; Vowinckel, 2012; Webster & Ma, 2013)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시간조망이 행복, 삶의 만족, 그리고 자존감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요인으로 구성된 K-BTPS은 각 요인에 12개와 1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측정에 있어 불필요한 의미중첩과 오차 간 상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모형의 적합도 가운데 TLI가 높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데,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해도 그 모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하면 TLI 값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한 홍세희(2000)의 견해와 요인 내 측정변수가 너무 많아도 TLI 값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이순목(2000)의 견해를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인 요인 내 포함되는 측정변수의 수를 7개 이내로 조정하는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며 상호 연관된 발달 과제로 개념화될 수 있다(Luyckx et al., 2008). 또한 미래와 현재 중 어떤 시간영역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인의 발달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Berzonsky, 1990; Luyckx, Lens, Smits, & Goossens, 2010).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시간조망의 확장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 및 발달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정보추구 및 지식습득, 성취와 관련된 목표는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사회정서선택이론(Carstensen, 1992)을 고려할 때, 연령대에 따른 시간조망의 변화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중년기와 노년기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간조망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수집한 자료표본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아 성비가 균등하지 못하였다. 리투아니아 연구(Liniauskaite & Kairys, 200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시간조망에 있어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훨씬 많다(김외숙, 2003; Wolf & Savickas, 1985; 윤소정, 김정섭, 2012에서 재인용; Mehta, Sundberg, Rohila, & Tyler, 1972)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주요 논점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표본에서 시간조망에서의 성차를 실증적 자료로 분석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균형적 시간조망에 있어 성차가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균형적 시간조망이라는 구성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우리말 척도를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했던 원칙도 개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제안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K-BTPS를 활용하여 시간조망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행복, 삶의 만족도, 자존감의 차이를 비교하여 시간조망과 개인의 안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 것 또한 작은 의의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BTPS가 시간조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안녕의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1). 심리척도 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미래시간조망, 그릿(grit)과 지연의 관계분석. *교육학연구*, 54(4), 21-43.
- 김외숙 (2003).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0.
-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송명자 (201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한국교육심리학회*, 26(2), 587-606.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보라 (2004). 사회적 바람직성 구인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경, 노승혜, 조현주 (2017). 마음챙김 자비 프로그램(MLCP)이 우울경향 대학생의 우울, 반추,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271-287.
- 최요원, 이수정 (2004).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87-901.
- 한경훈, 김병조, 노수림 (2017). 삶의 의미가 미래시간 조망에 미치는 영향-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8(1), 41-6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43-55.
- Barsics, C., Robetetz, M. L., Rochat, L., Argenbeau, A. D., & Linden, M. (2017). A French Version of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Cognitive Reappraisal.

-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9(1), 51-57.
- Berzonsky, M. D. (1990). Self-construction over the life-span: A process perspective on identity formation. *Advances in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1(1), 155-186.
- Bishop, S. R., Lau, M., Shapiro, S., Carlson, L., & Anderson, N. D. (2004). Mindfulness A proposed operational definit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1(3), 230-241.
- Boniwell, I. (2009). Perspectives on Time. In S.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95-3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niwell, I., & Zimbardo, P. (2003). Time to find the right balance. *The Psychologist*, 16(3), 4-5.
- Boniwell, I., & Zimbardo, P. G. (2004). Balancing one's time perspective in pursuit of optimal functioning. In P. A. Linley & S. Joseph (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165-179). Hoboken, NJ: Wiley.
- Boniwell, I., Osin, E., Linley, P. A., & Ivanchenko, G. V. (2010). A question of balance: Time perspective and well-being in British and Russian sampl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1), 24-40.
- Bryant, F. B., Smart, C. M., & King, S. P. (2005). Using the past to enhance the present: Boosting happiness through positive reminisc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3), 227-260.
- Cappeliez, P., O'Rourke, N., & Chaudhury, H. (2005). Function of reminiscence and mental health in later life. *Aging Ment Health*, 9(4), 295-301.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 Coudin, G., & Lima, M. L. (2011). Being well as Time Goes By: Future time Perspective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11(2), 219-23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rake, L., Duncan, E., Sutherland, F., Abernethy, C., & Henry, C. (2008). 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ime & Society*, 17(1), 47-61.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Oxford, England: Norton & Co.
- Hendricks, J., & Peters, C. B. (1986). The times of our lives: An integrative frame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5), 662-678.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073-1082.
- Husman, J., & Shell, D. F. (2008). Beliefs and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A measurement of future time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166-175.
- Lennings, C. J., & Gow, K. (1997). Time perspective,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Behavior*, 4(1), 37-51.
- Lennings, C. J., & Burns, A. M., & Cooney, G. (1998). Profiles of time perspective and personality: Considerations. *Journal of Psychology*, 132(6), 629-641.
- Liniauskaitė, A., & Kairys, A. (2009). The Lithuanian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 *Psichologija*, 40, 66-87.
- Litvinovic, G. (1999). *Perceived change, time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 the life span in Yugoslavia and the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Luyckx, K., Lens, W., Smits, I., & Goossens, L. (2010). Time perspective and identity formation: Short-term longitudinal dynamic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3), 238-247.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 Lyubomirsky, S., & Nolen-Hoeksema, S. (1995). Effects of Self-Focused Rumination on Nega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76-190.
- Mehta, P. H., Sundberg, N. D., Rohila, P. K., & Tyler, L. E. (1972). Future time perspectives of adolescents in India and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293-302.
- Paulhus, D. L. (1984). Two 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589-609.
-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 17-5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Paulhus, D. L. (2002).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The evolution of a construct. In H. Braun, D. N. Jackson, & D. E. Wiley (Eds.), *The role of constructs i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measurement* (pp. 67-88). Hillsdale, NJ: Erlbaum.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span, S., & Read, S. J. (1996). Present versus future time perspective and HIV risk among heterosexual college students. *Health Psychology, 15*(2), 131-134.
- Seijts, G. H. (1998). The importance of future time perspective in theories of work motivation. *Journal of Psychology, 132*(2), 154-169.
- Vowinckel, J. C. (2012). *Balanced time perspectives and mindfulness* (Bachelor's thesis). University of Twente, Netherland.
- Webster, J. D. (2011). A New Measure of Time Perspective: Initial Psychometric Findings for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 (BTIP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3*(2), 111-118.
- Webster, J. D. (2016). Reminiscence and anticipation: How a balanced time perspective predicts psychosocial strength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Reminiscence and Life Review, 3*(1), 1-7.
- Webster, J. D., & Ma, X. (2013). A balanced time perspective in adulthood: Well-being and developmental effects.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32*(4), 433-442.
- Webster, J. D., Bohlmeijer, E. T., & Westerhof, G. J. (2014). Time to flourish: the relationship of temporal perspective to well-being and wisdom across adulthood. *Aging & Mental Health, 18*(8), 1046-1056.
- Zhang, J. W., Howell, R. T., & Stolarski, M. (2013). Comparing Three Methods to Measure a Balanced Time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a Balanced 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1), 169-184.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Zimbardo, P. G., & Boyd, J. N.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원고접수일: 2017년 9월 7일

논문심사일: 2017년 10월 5일

게재결정일: 2018년 5월 31일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K-BTPS) involving Undergraduate Students

Ji-Sun Choi

Jeong-Mi Lee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 (K-BTPS) involving undergraduate students. Typically, 663 college students ($M=21.53$) were recruited from several universities in Seoul, South Korea. The study sample included 271 men (32.73%) and 446 women (67.27%), randomly divided data into two groups for analysis. Data from Sample 1 ($N=232$) was analyzed for EFA (Explanatory Factor Analysis) and data from Sample 2 ($N=431$) was analyzed for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wo-factor structure of K-BTPS was applicable for use on Korean college students. Second, the K-BTPS showed moderate reliability with scales of happiness (OHQ), life satisfaction (SWLS), self-esteem (RSES) and with two subscales (ZTPI)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Third, the K-BTPS showed a good test-retest reliability with respect to two-week intervals. Forth, based on the mean of K-BTPS score, participants were allocated to four sub-groups as time restrictive, futurist, reminisces, and time expansive category and the relevance between balanced time perspective and other related variables were discuss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in the present work.

Keywords: Time Perspective, Balanced time perspect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